

데일리한국

뉴스 | 스포츠 | 연예 | 포토 | 핫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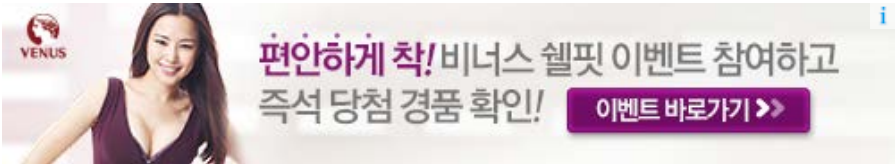


전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문화 라이프 칼럼 **연재물** 비즈브리핑

급등주포착 이유있는 쇼핑 VTV +

연재물 | 맛집 이야기 할리우드통신 뼈따기의 영화보기 어원이야기 사주풀이 번두리삼국지 스도쿠365 다른그림찾기 1분건강

독자의소리 | 독자제보



국민 71% "통일은 해야 하나 서두를 필요 없다" 대답한 까닭

[창간 기획-통일 시대 준비하자 ①]

조옥희 기자 hermes@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8/26 18:06:53 수정시간 : 2014.09.17 10:02:07

[f](#)[t](#)[g+](#)[★](#)[c](#)[+](#)[-](#)[🖨](#)[✉](#)[🛒](#)

오늘의 많이 본 기사

더보기 >

시사	경제	스포츠·연예
----	----	--------

- 1 "문재인이 상왕이냐" 직격탄 날린 조경태
- 2 '김부선 사태'로 본 아파트관리비 비리
- 3 女선수 유니폼 '특정부위 보이는 줄...'
- 4 침묵 깬 박 대통령 "세월호법 결단은..."
- 5朴대통령 "대통령 모독 발언 도 넘어" 직...
- 6 野 "제1야당에 대한 모멸" 직권결정 맹비난

투데이 Hot 이슈

"여성이 이쁜이수술하는 진짜이유? 충격.."

"공부 못하는 아이 혼내면 "더 멍청해져" 원...

12 19 T 화이트

106 T 아이보리



우리 국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통일은 해야 하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권영민 인턴기자 multi@hankooki.com

이혼男女 충격발언 이혼 전 꼭해

의사曰 고혈압, 당뇨 약 먹지마세요

Photo 광고문의

※편집자 주= 데일리한국은 창간을 기념해 국가의 핵심 어젠다인 '통일 준비'를 주제로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통일 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우리 국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통일은 해야 하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완화하고 남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데일리한국이 창간 **기념**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2~2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남북 통일의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71.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급적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대답은 17.0%였다. 결국 '통일이 필요하다'는 대답은 88.4%에 이르는 셈이다.



"여성이 이쁜이 수술하는 진짜이유?!"
"수술없는 질수축, 남편이 더 좋아해!"
"월500만원 버는데 집에서 하루 1시간 일해? 로또, 해봤자 광? 전문가 "낙침에 이유있다"

오늘의 무료만화



천하무적삼불귀
황재



무림파천록
황재

실시간 BEST 클릭

"男성에 끼운 '이것' 밤마다..충격!!"
-"말기암"도 낫는 치료법?..충격!
"임플란트 하실분만 클릭하세요!(치)"
"강남 땅부자 명동호텔분양 이유? 충격"
"밥먹고"OO"먹었더니 -15kg 쉽게?
"-[화제] 당뇨 "청국장" 말고 이것 먹어라?"

멀티미디어

인포그래픽 한국아이TV



반면 '굳이 통일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10.8%였고, 모름·무응답은 0.8%였다. 20대(19세 포함)와 30대에서는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18.7%, 16.3%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통일이 되면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란 믿음까지 주지는 못했으므로 굳이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대답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통일의 끝은 대박이란 점은 알렸으나 통일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통일의 당위성을 확산시키고 통일 준비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통일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펴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질문한 결과 '대북 제재 조치를 완화하고 남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54.2%에 달했다. '현재의 남북 교류 및 대북 압박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6.4%였고, '지금보다 더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7%. 박 교수는 "최근 남북 관계가 완전 경색돼 있으므로 교류를 확대하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제재 완화 및 교류 확대를 선호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언급한 '통일대박론'과 8.15광복절 추사에서 거론한 '남북 간의 작은 통로론'에 대해서는 지지 의견이 우세했다. '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환경, 민생, 문화 분야의 협력을 통해 남북 간의 작은 통로를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1.1%는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대답했다.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제안'이란 답변은 42.0%, 모름·무응답은 6.9%였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대답(63.9%)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32.1%)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통일 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제 및 민간 교류 확대(33.2%)와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갈등 해소(23.1%)가 가장 많았다. 교류 중에는 경제 교류 확대(19.2%)를 민간 교류 확대(14.0%)보다 더 중시했다. 그 다음으로 통일 당위성 공감대 확산(10.5%) 통일재원 마련(7.9%) 주변국 상대 통일외교 강화(7.6%) 남북정상회담 추진(7.6%) 초당적 대북정책 마련(3.5%) 순으로 나왔다.

박 교수는 "국민들은 경제·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정치·군사적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통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남북 간의 이질성(22.9%) 주변 강대국의 입장(22.2%)



라이프 스폰서

- 차 바꾸고 싶은데..내 차 '팔면' 얼마
- 휴가때 임플란트 어디서 할까? 치6099호
- [화제] 무릎관절 연골재생이 가능하다?
- "옥동자 정종철"이 말하는 'WWW' 법칙!?
- "100만원 벌던 노동자 1년만에 100억 벌..."
- 여기가 온라인 광고 명당!?

DODO&SHOES

명품수제화>

올시즌유행 리본슬링백	화이트 스텔레토힐	섹시해보여 X자스트랩	가을신상 장식포인트
편하고예뻐 가죽로퍼	초가을★ 유행예감	고급스럽게 발은편하게	너무예뻐 착화감굿
골든버튼 핑크클러치	♥특별한♥ 도금포인트	다들나눠봐 클래식토오피	러블리해 리본장식★

이유있는 이야기

1 / 4 < > ?

- 양모촉진 특허 삼푸 화제
- 성기능 좋아진 남편, 왜?
- 한우갈비·굴비 추석 ... 짹짹
- 유산생균 아토피 치료 효과

데일리한국:국민 71% "통일은 해야 하나 서두를 필요 없다" 대답한 까닭
북핵 문제(20.6%)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 다음은 통일 비용(17.5%) 남남 갈등(11.1%)을 거론했다.

이번 조사는 유선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병행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 ▶ 30.40代부부관계 관심사 - "한번더"?
- ▶ “임플란트”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치)

FDA에서 국내 탈모·양모 샴푸가 토닉으로 인정받아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홈으로 맨위로



보험물없이 가슴확대 정말가능한가?

직장인 A양은 여름철 휴가를 맞아 다이어트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살을 빼고나니 가슴까지 같이 작아져서 정작 노출을 하려니 부담이 되어 고민거리가 생기고 말았다 다이어트를 해 하듯 살은 가슴부터 빠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엘솔루션을 이용하여..

reople

마칠것 같은 가려움

아토피완치못하면 100% 환불 보장!!

탈모로 고민이신분 주목 효과없으면 100%전액환불

한달 머리감았더니 98%머리가... 충격!

THEME 레이싱 모델들의 남심 홀리는 ..

한국아이닷컴

데일리한

서울경제

스포츠한

이슈&트렌드

창업 아이터

서민 대출기

짜 출신 "3

▶ 늦게배운

박영선 눈이 번쩍 뜨일 해법 제시

▶ 박영선 '탈당 카드' 접고 복귀할듯

▶ 전문가들이 진단한 야당 현실 '충격'

기 닥친다' 상상초월 공포

저절로 끊게 만들 소식

한물 끼었을 갤럭시4 결단

ad plex

전체치아가 부실해서 임플란트 하려면(치)

김오곤" 비만여성 운동없이 살뺄수있다?!

대명 객실 50%추가할인!! 대박

개그맨 정종철, "영어실력" 학원이 충격!

생생정보통

- 흔들린 치아, 임플란트 하려면?
- 로또1등당첨자 30명배출된 인터넷명당
- 서민 대출지원 "최대5000만원까지.."
- 아이 셋 주부, 남편 몰래 '이것' 만지더니..
- 김오곤" 비만여성 운동없이 살뺄수있다?!
- 간암,간질환 탄거하지말고 "이것"만해라

오늘의 핫이슈



삼성-애플 또 격돌했다

- 아이폰6-갤노트4 스펙 비교... 승자는?
- 갤럭시4에 태클 거는 황당한 한국 상황
- 갤럭시노트 엣지, 측면 액정 써보니... 대박
- 갤럭시4 막강 기능에 아이폰6 결국...

PIA민간조사원

자격증 대비!

민간조사원 무료자료 >



골프매거진

파퐁러사이언스

리빙앤조이

BLACK YAK



충격, 황반변성...
치매를 부른다??



당신의 모발
지금 건강하십니까?



탈모로
고민하신 분 주목
효과가 없으면 100% 전액 환불



'학력' 높을수록 남자 뽑는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하기 어렵다는 통계
가 나왔다. 서울시는 15일 교육개발원의 '2...



3로 '이병헌 권미연 사건' 언급한 이유가...
난 대하, 효능과 조리법은?
증가, 체질량 지수 35 넘으면... 헉!



"우리동네 예체능"
조던시리즈!파격할인!



개그맨 정종철,
"영어실력" 충격!

골프한국

자동차IT

재테크

게임



입국한 김효주 '무슨 일 있었기에' 택시비가 200만원?'
[골프한국]골프사를새로 쓰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
어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퀸'에 등극한 김

"김효주 동생이 통역했다"는 황당한 오보
박인비 제친 '퍼트의 고수' 허미정, 우승까지 간다
타이거 우즈 "내 나이가 많은 건 맞지만, 내년에는..."

"이혼男女 충격발언 "이혼 전 꼭해"



"의사曰 고혈압,당뇨 약 먹지마세요



막바지 91%폭탄가
名品싸게 사는비밀?



남편몰래10분하니
매일밤신혼느낌?



흔한명품로렉스시계
눈물고별전90%세일



중고차1위 카니발R
실내가 호텔수준?

소셜로그인



소셜계정으로 작성하세요

요지경 세상

- " 온갖 남자와 성행위 이혼녀의 실체?
- " 스튜어디스 치맛속에 몰래... 경악
- " 옷 벗기더니 성기를 손으로... 충격
- " 처형 찾아가 하룻밤 지내더니... 경악
- " 너무 정교한 성행위용 인형 탓에...

오늘의 화제뉴스

- " 이럴 땐 입 싹 닦는 명품차 업체들
- " 복합미생물로 아토피 95%의 효과 검증
- " 문재인 향해 "상왕(上王)이나" 직격탄
- " "장애자 XXX야" 與 부대변인 막말 파문
- " 아이폰6-갤노트4 성능 직접 비교해보니...





0/250

로그인

Powered by LiveRe

전체댓글수 3

최신순 | 공감순 | 반대순

- 

sunwoozin 2014-08-27 04:14:53

여론조사를 밀을 수가 있어야지....

 2

 0



 댓글달기  신고

공유된 SNS





루루 2014-08-26 20:00:56

글쎄 한국일보 기사내용은 믿어야 하는데???
우째
신뢰도가 함량떨어지는 설문 문항으로 농락 당하는 기분이~~

 2

 0



 댓글달기  신고



comtimo 2014-08-26 18:59:45

많고많은 박대통령 사진중에서 고르고 골라 이사진을 실었습니까?
중간정도라도 택했어야지 어떤 이미지를 한국일보에서는 표현하
고 싶었는지요? 사람의표정은 어떤사람이라고 좋은표정만 있을까
요?
희노애락이 사람들 얼굴속에 너무나없이 다숨어있습니다. 이렇게까
지 나쁘게 표현할 이유가 있을까요? 고르느라고 애많이 스셨겠네요

 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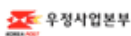


 댓글달기  신고

공유된 SNS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8/dh20140826180653137590.htm[2014-09-17 오전 10:16:44]



인터넷한국일보

주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8 조양빌딩 본관 10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1034 | 등록연월일 : 2009.11.12 | 발행·편집인 : 조상현 | 발행연월일 : 1996.1.16

인터넷한국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by internethankookilbo